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13호 2017년 1학기(2017. 3. 1 - 2017. 8. 31)



# Sol nursing times



## CONTENS

- 04 **우송대학교,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 05 **새로운 교수진 소개**  
2017학년도 신입교수 인터뷰
- 06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리더**  
SOL 칼럼 - 외국인 환자 증가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우송간호  
- 미국간호사의 첫 단추, 미국간호사면허증 취득 준비과정제 대하여  
Best Practice  
Learning Arabic in Malaysia  
아랍어 특강 기사  
NCLEX-RN 합격 소식 인터뷰
- 12 **우송간호 탐구생활 <학교편>**  
새내기들의 학교격응 길잡이-Sol-SUP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학과 전공체험 프로그램  
WSU 동아리 체험교실
- 14 **우송간호 탐구생활 <학과편>**  
Sol-Fun! Fun! Fun!  
간호학과 MT "어디로 간호? 같이 간호!"  
기초 간호 세미나 경진대회  
The Medical Terminology Contest
- 16 **우송간호 탐구생활 <학교편>**  
자발적 참여의 즐거움과 협동이 함께한 'Learning Concert'  
찾아가는 보건 교육, 새싹들을 위한 좋은 밑거름  
제 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Begin of preparation for global nursing leaders!
- 18 **우송간호의 역량 강화 도모, 특강**  
The American Nurse Anesthetists  
The American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CRNA)  
아랍 국제간호 아카데미  
United Arab Emirates (UAE)  
2017학년도 여름학기 Active Learning 초청 특강  
4차 산업혁명과 간호
- 22 **우송간호의 실무형 인재 양성-실무역량 강화**  
우송간호, 학생간호사로서 첫발자국을 내딛다  
차별화된 여성병원, 분당 차 여성병원에 다녀오다  
우송간호의 세계로 향한 발걸음  
학생 간호사,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다  
<우송간호 임상실습 현장>  
LG Global Challenger  
2017년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
- 28 **우송간호의 사회로의 첫 걸음 - 취업 역량 강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취업설명회  
아주대학교병원 간호본부 취업설명회  
<자랑스런 우송간호 취업 소식>
- 30 **간호학과 신문 동아리**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고 남 의  
발행처. SOL-Times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 우송대학교,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우송대학교가 이번 2017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선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에 포함되었다. 1995년 개교 이래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융합 역량을 갖춘 창의적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특성화, 세계화 교육을 지향한 지 12년 만이다. 또한, 2008년 국내 유일의 국제경영대학인 솔브릿지 국제 경영대학을 설립했으며 2014년에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International, AACSB International)인증을 최단기간에 획득했다. '잘 가르치는 대학'에 선정된 42개 대학교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에 선정되어 향후 4년간 약 5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차운주 기자/사진출처 : 우송대학교 홈페이지(<http://www.wsu.ac.kr>)



## 2017학년도 신입교수 인터뷰 강석정 교수



2017년 봄의 계절과 함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교수가 새로이 들어왔다. 새로운 환경에서 첫 교수생활을 시작하게 된 강석정 교수의 앞으로의 포부와 역할기대를 알아보고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강석정 교수는 현재 1학년 학생들의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주기적으로 학년별 미팅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생활을 배워가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14년 7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중양내과 병동, 외래, 항암 주사실, 긴급진료실에서 근무하며, 대부분 성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중양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퇴사 후에는 모교에서 실습지도 및 행정 업무를 하면서 간호대학 학생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교육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새내기입니다.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학구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학과 공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학생들은 각자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교수님들은 열정적이고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끼며, 학생들도 교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선배 사이의 돈독함도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이 분위기가 쪽이어서 저도 더불어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과목과 앞으로의 역할기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올해 1학기에는 4학년 학생 실습지도 및 '시뮬레이션' 과목과 1학년 '간호철학과 역사'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내적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현장에서 행복한 간호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지해 주는 교육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나요?**

A. 4년간의 교육과정을 잘 마친 후 간호인이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너무 주눅 들거나 자만하지 말고,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학과의 특성상 다른 학과에 비해 대학 생활의 여유가 없는 편이지만, 나름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현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 이호은 기자/ 사진출처 : 강석정 교수님

## <SOL 칼럼>



주제 : 외국인 환자 증가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우송간호

전략 : 국제간호특성화 과정 운영

한국 의료관광 시장은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된 이래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급성장하였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여 2009년 6만 201명에서 2012년 15만 9,464명, 2015년에는 29만 6,889명에 이르며, 외국인 환자의 진료 수익도 2015년 6,697억 원으로 2009년 대비 연 평균 성장률이 51.8%에 이르렀다. 이 추세면 2018년도 방문 의료관광객은 7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중국인 환자가 33.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이후 미국, 러시아, 일본 순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UAE 등 'G2G(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전략 국가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관광객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 분야에서 고르게 의료진의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최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불편 사항으로는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 습득 불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말하였다.

한국 의료 관광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여러 가지 대처 전략과 함께 학생들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간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간호전공 외국인 교수가 실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간호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원서 중심의 전공수업과 더불어 미국 간호사 면허(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 NCLEX-RN)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수준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본과에서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1학년부턴 4학년까지 주당 20 시간 이상의 외국어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 운영을 통해 공인시험 준비를 비롯한 간호 실무영어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셋 중 택일하여 전 학생이 제2외국어를 배우고 있다. 또한, 제2외국어 경진대회 개최와 함께 제2외국어 자격증 취득을 통해 학생들의 향상된 외국어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과에서는 학기별로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유럽, 호주 등의 국제 교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국제 간호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덕분에 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 의료 관광이 활성화된 의료 현장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 강화경 기자

[출처] 한국의료관광마케팅 파헤치기 - 한국 의료관광 현황(1) 알아보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홈페이지(<http://www.wsu.ac.kr>)



## 미국간호사의 첫 단추, 미국간호사면허증 취득 준비과정에 대하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선두적인 간호 지식과 간호 실무역량을 함양한 글로벌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간호특성화과정 중 하나인 IGN 과목(International Global Nursing)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IGN은 2~4학년을 대상으로 미국 간호사면허시험(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Registered Nurse, NCLEX-RN)에서 출제되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과 대상자 요구(Client Needs) 및 간호과정 범주 내 전공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졸업생 1기부터 2017년 7월까지를 기준으로 16명의 졸업생이 면허증 취득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미국간호사면허증은 무엇이며 시험방식과 서류 진행 절차 및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간호사면허시험(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Registered Nurse, NCLEX-RN)은 미국 내에서 간호사로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추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미국 간호대학을 졸업자 혹은 미국의 각 주 간호부(Nursing Board)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면허를 소지한 모든 간호사는 NCLEX-RN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즉, 정리하자면 NCLEX-RN 응시 자격은 미국에서 간호 대학을 졸업한 사람, 외국 간호 대학을 졸업 후 해당 국가 간호사 자격 보유자, 한국에서 3년제나 4년제 간호 대학 졸업 후 한국 간호사 면허증을 보유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NCLEX-RN의 시험형식은 컴퓨터 반응 시험(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CAT) 1:1 Test이다. 시험 문제는 문제 은행 식이며 문항마다 점수의 가중치와 난이도가 다르고 개인의 실력에 따라 최소 75문제~265문제를 최대 6시간 동안 풀게 된다. 시험을 보는 중이라고 합격선에 도달하거나 미달하면 컴퓨터가 멈추고, 판단하지 못할 수준이면 판단 가능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CAT의 장점은 응시자가 편리한 시험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용한 수험 분위기와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확인(confirm)을 클릭한 후 다음(next) 버튼을 누르면 답을 수정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NCLEX-RN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뉴욕보드 서류 진행 절차가 반드시 걸쳐야 한다. 첫 번째는 외국인 간호사 자격시험 주관위원회 시험(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 CGFNS)과 뉴욕 보드 응시 원서를 준비한다. 이 과정은 외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의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서류 공증받기 및 서류 발송이다. 서류 발송 후 1개월 이내로 '대한 간호 협회'의 '의료인과 간호 윤리' 수업 이수 필수로 해야 한다. 세 번째는 CGFNS심사가 진행된다. 네 번째는 뉴욕 보드 심사 진행이다. 다섯 번째는 ATT(Authorization To Test) 신청으로 인터넷 접속을 한다. 여섯 번째는 ATT을 받은 후 시험 일정을 잡는 것이다. 보통 시험 일정을 잡는 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응시자가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시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곱 번째는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며 이때 꼭 여권을 들고 가야 한다.

NCLEX-RN 시험 준비는 보통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시작하지만, 개인의 영어 실력 등의 편차로 사람마다 준비해야 할 기간은 다르다. 보통 3개월에서 1년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 강화경 기자

[출처]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s of Nursing (<http://www.ncsbn.org>)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홈페이지(<http://www.wsu.ac.kr>)

# Best Practice

## 글로벌 간호리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제 2외국어 공인성적 시험 지원 사업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총 11개월 간 추진된다. 지난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의 유치가 허용된 이후 병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고 제 2의 중동 붐과 함께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간호사 인력을 대상으로 글로벌 특성화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제 2외국어 능력과 영어 회화능력 향상, 교재개발 글로벌 및 간호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및 실행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이 비용부담 없이 제 2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 2외국어 공인성적 시험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 되고 있으며 자격증에 합격할 시에 접수비의 50%를 지원해준다.

◆ 이호은 기자

# Learning Arabic in Malaysia

##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날개를 달아준다



2017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2일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아랍어반 학생들의 Best practice 사업이 진행되었다. 아랍어 실력증진과 해외 탐방을 목적으로 한 이번 연수는 다양한 인종이 분포하며 거대한 대륙을 특징으로 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졌다. 오전엔 UM대학에서 아랍어 회화, 의료용어 및 대화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오후엔 아랍 친구들과 함께한 버디버디 프로그램, 바틱 체험, 병원 탐방 등이 진행되었다.

위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가영 학생은 "이번 해외연수 기간에 두 명의 아랍인 교수님들과 함께한 수업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또, 직접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며 색다른 재미를 느꼈고 넓은 땅덩어리를 누비고 다양한 인종들을 직접 체험해보니 제가 우울 안 개구리처럼 느껴졌어요. 이후, 저의 무대를 단지 한국이 아닌 세계로 넓히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진윤정 기자/ 사진출처 : 진윤정 기자



# 간호의 견문을 넓히다, Islamic lecture in Malaysia



지난 8월 8일 말라야대학에서, 아랍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는 간호학과 13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슬람 문화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이 특강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들의 종교를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었다. 평화라는 의미를 지닌 이슬람교는 코란을 경전으로 하며 이는 610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아 완성한 것이다. 그 계시는 아랍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암송되었고 오늘날까지 정확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슬람교의 핵심은 알라를 유일신으로 모신다는 점이며 하루 5번의 예배, 라마단, 종교세, 순례 등의 신앙 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코란에 대한 종합적 이해 뿐 아니라 사람들의 종교의식, 생활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해 볼 기회를 얻었다. 위 특강에 참여한 조 은지 학생은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진 강의 덕에 직접 질문해보며 궁금증을 풀 수 있었고 경전 속에 빅뱅이론과 태아 형성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이번 특강을 통해 이슬람 문화에 한발 가까워질 수 있었고, 아랍권 국가에서 간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환자에 대해 넓혀진 견문으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 Broaden view of Nursing, Islamic lecture in Malaysia

On Aug. 8, a special lecture on Islamic culture was held at University of Malaya, with 13 nursing students studying Arabic as a second language. This lecture was based on religion which is most basic and important and broadened their view of Muslims.

A Muslim with the meaning of peace has the Koran as its scripture, which was completed in 610 by the Prophet Muhammad's revelation of Allah. The revelation is made up of Arabic, recited in the mouths of men, and contains exactly the same contents to this day. The core of the islamic religion is the fact that Allah is the only god and they have five worships a day, Ramadan, religion tax, and pilgrimage. In this way,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not only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Koran, but also people's religious rituals and lifestyle.

Joe Eunji, who participated in the lecture said, "I was glad to solve my curiosity by asking questions directly during the lecture. It was very interesting that the scriptures included the Big bang theory and the process of fetal formation. I am very pleased that I am able to provide a nursing with a broadened view on the patient if I have the opportunity being a nurse in the Arab countries later."

◆ 진윤정 기자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 NCLEX-RN 합격 소식 인터뷰 Fairmont State University 졸업생 김지현 동문 "2013년 이후 NECLEX-RN 합격 소식 16번째"

Fairmont State University(FSU)에서 '2+2' 복수 학위 제도를 통해 총 2개의 간호학 학위를 취득한 2017년 졸업생 김지현 동문은 올해 7월 14일에 미국 간호사 면허(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Registered Nurse, NCLEX-RN)를 취득하였다. 미국 간호사 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한 2013년 이후 김지현 동문은 16번째에 속하고, Fairmont State University 졸업생 중에서는 안정섭, 최우원, 김예원, 박진영 동문 다음으로 5번째에 속한다. 김지현 동문의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까지의 과정과 취득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인터뷰를 마련하였다.

**Q.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선 면허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우선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함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잘 해결이 되었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다행히 시험장에서는 심하게 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열심히 풀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험 푸는 내내 함께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무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Q.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한 내용이 미국 간호사 면허증 공부하는 법이었습니다. Fairmont State University(FSU)에 진학을 한 후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 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A. 우선 한 달 정도 'Saunders, Comprehensive review for the NCLEX-RN Examination' 교재를 정독하였습니다. 아무리 한국과 미국에서 간호학 공부를 했지만, 모든 내용을 완벽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웠기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International Global Nursing(IGN)' 과목에서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경험해본바 교재의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 내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완벽히 공부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세부적으로는 과목별 3~5일 이내에 1회를 정독하기로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책이 꽤 두껍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가 점점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부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자가진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재에 수록된 문제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Health Education Systems Incorporated(HESI)' 모의고사 문제와 'Uworld' 문제 은행을 많이 접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Uworld'는 문제의 수준이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해설이 굉장히 훌륭하기에 이 또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Fairmont 재학생들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우선 FSU 재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2년의 대학생활 동안 그저 잘 무탈하게 공부하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화려한 삶을 생각하고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한국과는 차이가 있기에 이 또한 새롭고 유익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버티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들 중 FSU에 진학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한국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처럼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곳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목표로 하는 병원에 혹은 다른 꿈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신이 맞는 길이 있으니까 어디를 선택하든 건투를 빕니다. 우송간호 파이팅!

◆ 이호은 기자 / 사진출처 : 김지현 동문

## 새내기들의 학교적응 길잡이 Sol-SUP

81명의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 2월 22일부터 3월 7일 까지 Sol SUP(Start Up Program)을 진행하였다. Sol SUP은 신입생들이 입학한 이후 대학의 새로운 학습 환경에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8일간 총 30시간 진행된 Sol SUP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고 학과 조교와 2학년 멘토 학생들을 통해 학과에 대해 질문을 받고 설명해 주는 시간을 포함하여 리더십, 창의성, 학습법, 글로벌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였다.



◆ 김의현 기자 / 사진출처 : 김의현 기자



##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 학과 전공체험 프로그램

2017년 5월 2일, 5월 4일에 보문고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별 전공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간호학과와 정은영 학과장의 환영 인사, 간호학과 홍보 영상 시청, 활력징후 측정 및 모의병원 'Sol-Hospital'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간호학과 재학생들과 함께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단어 및 회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Sol-Hospital'의 소아과 집중 치료실(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PICU), 집중 치료실(Intensive Care Unit, ICU), 수술실(Operating Room, OR)에서 실습모형을 활용하여 간호 술기를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재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및 설문지 작성으로 모든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다. 전공 체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희망 고교와의 협의를 통해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호은 기자 / 사진출처 : 이호은 기자



## WSU 동아리 체험교실



우송도서관 (W1) 소강당에서 4월 15일 오전 11시부터 『WSU 동아리 체험교실』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본 프로그램에 선정된 고교 동아리 학생 및 대학 동아리 학생이 참석하였다. 우송대학교 입학처에서 주관하여 올해 처음 실행되는 프로그램인 『WSU 동아리 체험교실』은 전공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고등학생에게 전공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에게 자신의 전공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학교는 더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간호학과에서는 '힐링캠프, 아리알찬WN, WHAT, 우간맛!'의 네 팀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간단한 실습을 포함해 간호 관련 퀴즈를 진행하거나 간호 이슈에 관해서 토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전체 활동을 마친 후 우송대학교 우송도서관(W1) 소강당에서 9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WSU 동아리 체험교실 최종 결과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18개 학과 총 25팀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최종 결과 발표가 끝나고 고등학생 우수 소감문 발표 후에 우수 동아리를 선

정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간호학과 'WHAT!' 팀에서 최종 결과 발표회 1등을 차지하였다. 이 팀은 혈압 측정 실습, 무균 장갑 착용 실습, 간호 이슈 토론 등의 활동을 정리하여 재미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고등학생들에게는 간단한 간호 실습을 통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대학생들에게는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경험이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대학생 대표 진윤정 학생은 고등학교 시절에 간호 관련 동아리가 없어 진로 탐색의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 차윤주 기자 / 사진제공 : 고남의



## Sol-Fun! Fun! Fun!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전체 학년 미팅



3월 15일 우송도서관(W1) 소강당에서 우송 간호의 설레는 새 학기를 알리는 전체 미팅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힘찬 환영의 박수로 입장하는 1학년 새내기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고 학과장님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교수님들과 2017년도 학생회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어 학과의 행사일정, 기숙사 규칙 소개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도모하였으며 끝으로 'Sol Challenge', '일본 연수팀'의 활동보고가 이어졌다. 1학년 백지원 학생은 "처음으로 모든 간호학과 교수님, 동기, 선배들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고 우송 가족의 일원으로 활기차고 성실한 대학 생활을 임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선배들의 외국 연수 활동 발표를 듣고 난 후 저도 열른 기회를 얻어 학과의 다양한 국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진운정 기자/사진출처 : 김의현 기자



2017년 3월 17일 우송대학교 체육관에서 간호학과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었다. 위 행사는 학과 내 학생들과 지도교수 간의 단합을 유도하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친목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체육대회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융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학년 신입생부터 최고 학년인 4학년 학생들 모두가 각 팀의 지도 교수와 외국인 교수님과 함께 힘을 모아 '신발 양궁 대회', 'O, X 퀴즈', '협동 공 튀기기', '이인 삼각 달리기'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중간에 제공된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기 초임에도 바쁜 학과 생활로 인해 전 학년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흔치 않은 때에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서로 많이 알아가고 단합하며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이호은 기자/사진출처 : 이호은 기자

## 간호학과 MT "어디로 간호?같이 간호!"



## 기초 간호 세미나 경진대회 The Medical Terminology Contest



5월 31일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Medical Terminology Contest가 열렸다. 각 팀은 4~5명으로 이루어져 5월 26일 수업시간에 예선전을 치렀다. 5월 31일 진행된 본선에서는 16개의 팀 중에서 최종 8개의 팀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총 5라운드로 이루어졌는데 1, 2, 3라운드는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4라운드는 몸으로 말하기, 5라운드는 스피드게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더불어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는 기존의 수업방식을 탈피해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성을 이끌어냈고 그들의 학습역량을 강화시켰다.

◆ 김혜민 기자 / 사진 : 김혜민 기자

On May 31, 2017, the Medical Terminology Contest was held for the first-year students of the nursing department who are currently studying basic nursing seminars in the underground hall of the library. The first-year students were teamed up with 4 or 5 members and the preliminary rounds of the contest were held on the 26th of May. Finally, on May 31, the last eight teams from 16 teams participated in the finals. The tournament was held in 5 rounds. The first round, second round and third rounds were like the Golden Bells, while the fourth round was speaking with body and the fifth round was speed quiz. The winner of this competition was given a scholarship as well a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semester sol-challenge which is an overseas study. At the same time as offering this opportunity, the contes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eaching method, was enthusiastic for the students and it was a competition to increase students learning capacity. Thanks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the students, the competition was successfully completed.

◆ By Hye-min Kim, Seri Ahn (translation)

## 자발적 참여의 즐거움과 협동이 함께한 'Learning Concert'



2017년 7월 13일 목요일에 보건의료과학관 510-2호에서 13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심리학을 배우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Learning Concert'가 열렸다. 본 행사는 001분반과 002분반이 나누어서 진행되었고 강박 장애, 성 기능장애 등의 이상행동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조별 15~20분간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또한, 자신이 조사한 이상행동을 공부하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행동을 보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심사는 발표력, 내용의 적합성 등 총 6개의 항목으로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마치기 전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본 행사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사항을 조사해 다음 행사에서 더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혜민 기자 / 사진출처: 김혜민 기자



## 찾아가는 보건 교육, 새싹들을 위한 좋은 밑거름



지난 7월 18일 화요일 보건의료과학관(W5)에서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세 시간가량의 보건교육학 Active Learning Concert 경진대회가 실시되었다. 이는 UCC 프로젝트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6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되었던 보건교육 실습 때 했던 활동 내용에 대해 총 11조가 발표하였다. 보건 교육은 조마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다양하게 배정되었으며 또한 손 씻기 교육, 양치 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고혈압 당뇨 예방 교육 등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기관과 연락을 통해 보건 교육 매체 및

날짜를 선정하여 더 효과적인 실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적절한 매체 활용이나 주제 선정, 참여도 부문에서 학생들과 교수가 직접 평가하여 7 팀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소영 학생은 평소에 이렇게 직접 간호 교육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직접 경험을 해 보면서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잘 참여해 주셔서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김의현 기자 / 사진출처: 김의현 기자

## 글로벌 간호 리더, 그 준비과정을 시작하다 제 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Begin of preparation for global nursing leaders!



2017년 5월 26일 우송대학교 도서관 소강당에서 제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개최되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1시부터 진행된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1부로는 나이팅게일 선서식 2부로는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3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기 전에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로 시작하는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함으로써 간호사로서 지켜야 할 행동과 마음가짐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날 존 엔디 컷 우송대학교 총장부터 학부모들까지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을 하였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들이 악기 연주와 합창으로써 선배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치르는 의례이며 이 선서를 통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이 글로벌 간호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강규민 학생

On May 26, 2017, the 7th Florence Nightingale Pledge Ceremony was held at the auditorium of the Woosong University Library. The Florence Nightingale Pledge Ceremony, held for junior students of the Woosong University,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the nightingale ceremony and the parents' meeting. Before going to the hospital practice, they had a time to reflect on their behaviors and attitudes that they should always keep in mind as nurses by reading the Nightingale pledge, beginning with announcing "I solemnly pledge before God and you that I will live my life righteously and give my best to the nursing profession." On this day, John E. Endicott, president of the Woosong University, parents and many others visited to congratulate the seniors. 1st and 2nd grad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tudents also had time to celebrate with their seniors by playing the instruments and singing chorus. The Florence Nightingale Pledge Ceremony is a ritual that must be performed before becoming a nurse, and through this ceremony it can be said that the third-year students of Woosong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 have completed their preparations for becoming a global nursing leader.

◆ By so young Jung, seri Ahn (translation)



## The American Nurse Anesthetists

지난 3월 24일, Michong Rayborn 교수의 'The American Nurse Anesthetists'라는 특강이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Michong Rayborn 교수는 CRNA(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로 현재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난 솔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번 특강에서는 마취 전문 간호사의 역사부터 역할의 변화, 학위 취득과 양성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2학년 김의현 학생은 "마취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법적 논쟁과 노력, 개인보다는 단체로 노력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사회에 도전하는 전문적인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의현 기자 / 사진출처 : 김의현 기자

## The American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CRNA)

On March 24, Prof. Michal Rayborn's special lecture 'The American Nurse Anesthetists' was held for the second-year students of the nursing department. Professor Michong Rayborn known through the Sol Challenge program is a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CRNA) and is currently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In this lecture, the contents from the history of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to the role change, acquisition and training of degree were included. Particularly, second-year student Ui-hyeon Kim commented, "I was impressed with the legal arguments and efforts needed to become a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and also about the fact that working as a group is very importan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expertise of nurses is required, nursing students ought to have a detailed vision of the challenges to the global community.

◆ By Ui-hyeon Kim, Seri Ahn (trans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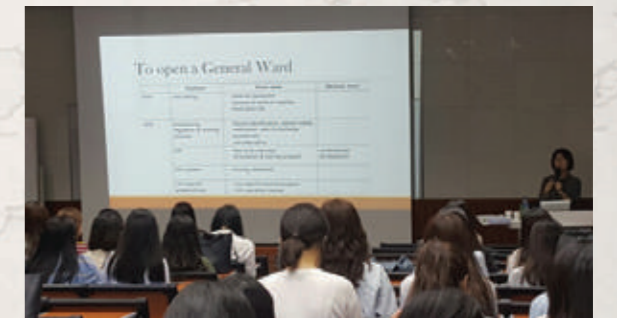
## 아랍 국제간호 아카데미

'아랍어와 아랍 세계의 의료문화'

아랍 세계 환자 간호역량의 기본이 되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아랍 환자 간호 실무에 대한 지식을 고취시키고자 Best Practice 사업 중 하나인 아랍 국제간호 아카데미 특강이 진행되었다. 총 3개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특강을 이수한 자는 자격증을 수여 받는 큰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4월 5일과 12일 우송 타워에서 '아랍어와 아랍세계의 의료문화' 특강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초청된 이인섭 교수는 현 EBS 인터넷강사로 등장부터 학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첫날은 아랍문화와 경제, 역사를 더불어 아랍국가에서 생생한 생활담으로 이루어졌고 둘째 날엔 아랍어, 무슬림의 의료문화, 아랍국가의 미래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는 다른 국가들의 문화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대하는지에 대한 교수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끝인사로 특강은 종료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2학년 안예균 학생은 "아랍병원에서 근무하는 막연하기만 했던 꿈에 대해 강사님의 열정적인 특강이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 간호뿐 아니라 아랍어를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진윤정 기자 / 사진출처 : 진윤정 기자



## United Arab Emirates (UAE)

세계로 비상하는 우송간호

5월 3일 보건의료과학관에서 현 서울대병원 수간호사로 재직 중인 오필주 강사를 초청해 특강이 진행되었다. 아랍어를 제2외국어로 수강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필주 강사는 아랍에미리트의 역사, 인구 구성 및 건강상태, 드레스 코드, 언어를 비롯한 그들의 문화를 설명했고 서울대가 위탁 운영을 하는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에서의 생생한 경험담을 강연했다. 이 특강에 참석한 전지현 학생은 "말로만 듣던 셰이크 칼리파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신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 뵈게 되어 영광이었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유치환 시인의 '생명의 서'라는 시에서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을 묘사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진윤정 기자 / 사진출처 : 진윤정 기자

# 에니어그램을 통해 나를 이해하다 2017학년도 여름학기 Active Learning 초청 특강

2017년 7월 5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보건의료과학관(W5) 101호에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리더스 연구원 대표이자 한남대학교 교수 임연선 교수의 심리학 Active Learning 초청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 특강은 에니어그램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인간의 심리와 여러 가지 심리검사 중에서 에니어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에니어그램이란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이자 인간 이해의 틀이다. 학생들은 에니어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에니어그램 검사를 진행하여 같은 유형을 지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를 이루어 공통점을 찾는 활동을 하였다. 특강은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을 이해하며 마무리되었다.

◆ 김혜민 기자 / 사진출처: 정소영 기자



# 4차 산업혁명과 간호 의료로봇의 보편화와 미래의 의료 현장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 우송타워 4층 지하 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간호'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에 초청된 서울대 어린이 병원 임준서 강사는 아직까지 사회에 존재하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그들의 고충을 직접적인 경험에 빚대어 나누었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또한, 이미 사용되거나 개발 중인 의료로봇에 대해 설명을 하며 간호를 전공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방향들을 제시했다. 위 특강에 참여한 이진주 학생은 "강사님을 통해 남자간호사가 겪는 어려움과 속내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고 간호를 전공한 후 간호사의 길 외에 새로운 직업에 대해 탐구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진윤정 기자 / 사진출처: 민유림 학생



우송간호 하계 임상실습을 통한 실무역량 증진

# 우송간호, 학생간호사로서 첫발자국을 내딛다.

## 삼성 서울병원 간호학과 3학년 양민아



**Q. 안녕하세요, 실습과목과 병원 및 병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성인간호학 실습 1을 삼성서울병원 본관 14E 병동에서 하였습니다. 2000병상을 가진 초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Big 5 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실습한 병동은 신경외과(Neurosurgery, NS)와 정형외과(Orthopedic Surgery, OS) 병동입니다. 간호는 팀 간호 방식으로, A 팀이 정형외과(OS), B 팀이 신경외과(NS), 그리고 C 팀은 2인실을 쓰고 있는 신경외과(NS)와 정형외과(OS)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은 주로 A 팀과 B 팀에 배정됩니다. 각 진료과의 주요 질병은 정형외과(OS)에는 무릎 인공 관절 치환술(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TKRA), 고관절 치환술(Total Hip Replacement Arthroplasty, THRA) 수술 환자들이 많고 신경외과(NS)에는 교아세포종(Glioblastoma) 등의 뇌종양, 개두술(Craniotomy), 경점협동점근법(Transsphenoidal Approach, TSA) 환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Q. 실습을 통해서 배운 점과 이론공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신경외과(NS)에서 자주 시행하는 수술인 감마 나이프 수술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론으로는 간단히 훑고만 지나갔던 것을 실제로 보고 자세한 설명을 들 수 있어서 이해하는 데 훨씬 쉬웠습니다. 수업 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의와 방법만 간단히 짚고 넘어갔는데 직접 보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환자들이 언제 불편해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감마나이프 수술 환자를 간호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배정되었던 신경외과(NS)에서는 매 듀티마다 신경학적 사정을 하였습니다. 각 환자마다 건강 사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건강 사정 과목에서 배웠던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습을 하게 될 후배들에게 전해줄 충고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실습 시 우물쭈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 실습을 나가면 간호 학생으로서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들, 환자들에게 인사를 잘하도록 하고 활력 징후(Vital Signs, VS), 혈당체크(Blood Sugar Test, BST)의 정상 범위를 잘 알아두고 있다가 이상이 있으면 제대로 보고하는 것 등만 잘 해도 무난하게 실습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실습에 대해 너무 겁먹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 김혜민 기자 / 사진출처 :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www.samsunghospital.com)

우송간호 하계 임상실습을 통한 실무역량 증진

# 차별화된 여성병원, 분당 차 여성병원에 다녀오다.

## 분당 차 여성 병원 간호학과 3학년 남지혜



**Q. 안녕하세요, 실습과목과 병원 및 병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가 다녀온 분당 차병원 여성 병동의 3층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고 다른 병원과는 달리 아동과 여성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병동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차 여성 병동에는 주로 부인과 질환을 다루는 부인과(Gynecology, GY)환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임신, 출산, 출산 후 산욕기를 다루는 산부인과(Obstetrics, OB) 환자들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병동에는 조기분만으로 인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태아 안전 검사(Non-Stress Test, NST) 검사를 다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였던 점 하나는 여성 병동에 책임 간호사 선생님은 계시지 않으셨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Q. 실습을 통해서 배운 점과 이론공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다른 과목 실습과 비교해서 여성 병동 실습이 좀 더 이론 공부와 관련이 깊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NST 검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수와 산모의 수축 그래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라는 것을 이론 공부에서 알아 두지 않았다면 NST 시행의 중요성과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론 공부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핵심 간호 술기가 실습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과 글로 공부를 하면서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을 망각하게 되면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습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습을 하게 될 후배들에게 전해줄 충고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제가 가장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실습을 나가기 전에 너무 큰 걱정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습하면서 너무 긴장하거나 과도하게 편한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이 실습 태도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감정의 중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간호사로서 실습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론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무엇보다도 핵심 기본 간호 술기를 잘 숙지하고 가야 합니다. 아동이나 여성 실습의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관해 공부를 하고 간단히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얻어 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습을 배움의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공부를 철저히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소영 기자 / 사진출처 : 분당 차 여성병원 홈페이지 (http://bundangwoman.chamc.co.kr)

우송간호 하계 임상실습을 통한 실무역량 증진

# 우송간호의 세계로 향한 발걸음

## 청심 국제병원 간호학과 3학년 김소원



**Q. 안녕하세요, 실습과목과 병원 및 병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청심국제병원에서 실습한 과목은 IGN(International Global Nursing)입니다. 배정받은 부서는 내과 병동이고 배정 방식은 병원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정해집니다. 내과 병동은 환자 수와 입·퇴원이 많은 부서이며, 주로 만성질환 환자나, 장기 입원의 경우 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병원의 특이점으로는 일본인 간호사도 함께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습한 내과 부서에는 1명의 담당 간호사 선생님과 1명의 간호조무사님이 계셨습니다. 국적은 일본이지만 한국어에 능통해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 형식이 기능적 분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타 병원의 팀 간호 방식과 비교하면서 실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실습을 통해서 배운 점과 이론공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청심국제병원에서 실습하게 되면 외국인 환자들과 접할 기회가 생깁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환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와의 신뢰감 또한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습을 통해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은 이론 공부를 통해 습득할 수 있으나, 환자를 간호하는데 중요한 소통능력과 공감 능력은 임상에 직접 경험해야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이론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습을 하게 될 후배들에게 전해줄 충고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실습을 처음 하게 되면 당연히 모르는 것도 많고 겁이 나겠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고 실습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간호지식이 바탕이 된다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을 하게 되면 이전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 부서에 맞추어 공부해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큰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습 기간은 어쩌면 학생간호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시기일 것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하여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수민 기자/사진출처 : 청심 국제병원 홈페이지(www.csmc.or.kr)



우송간호 하계 임상실습을 통한 실무역량 증진

# 학생 간호사,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다

## 서울 아산 병원 간호학과 3학년 김단홍



**Q. 안녕하세요, 실습과목과 병원 및 병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아동 간호학실습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 병원 135병동에서 하였습니다. 제가 실습한 135병동은 심장과, 소아청소년 호흡기 알레르기과, 소아청소년 중환자 과의 소아심장외과가 주된 병동입니다. 소아 심장 전문간호사가 병동에 상주하며 심장 수술 후 환아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간호는 팀 간호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동을 A, B, C, D로 총 4군데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습생의 경우 C, D 팀에 배정이 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무균술(Aseptic technique)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이 가진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담은 간호를 환아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들께서도 전문적인 간호사의 면모를 보고 간호사를 신뢰하고 따라주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Q. 실습을 통해서 배운 점과 이론공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환아들을 보고, 간호사들이 어떻게 아이와 상호작용하고 간호를 제공하는지 직접 눈으로 관찰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동 간호학 수업 때 배운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보고, 어떤 환아에 대해 '왜 저러한 간호를 제공하는지' 의문이 든다면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다음에, 모르는 것은 여쭙가며 몰랐던 것들을 알아갔습니다. 사실 이론과 실습은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에 이론 따로, 실습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실습 시 활용할 수 있고, 실습을 통해 내가 몰랐던 것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에 외우기만 했던 활력징후 범위를 실습임상에서 활력징후를 재보고 환아의 연령에 맞춰 비교해보고 이상이 있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므로써 수업시간에 체감하지 못했던 간호 지식을 실습 시 환아들을 접하면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습을 하게 될 후배들에게 전해줄 충고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저도 실습을 나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당연히 후배분들도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에 나가면 웃는 얼굴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본적인 예의나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항상 의문점을 가지면서 실습하고,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여쭙고 자기 역량을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만 지킨다면 실습을 좋은 배움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소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잘 복습해두어야 실습 때 접목하고, 부족한 건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보다 오늘에 최선을 다 한다면 만사형통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 정설희기자 / 사진출처 :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www.amc.seoul.kr)

## <우송간호 임상실습 현장>

### [서울]



###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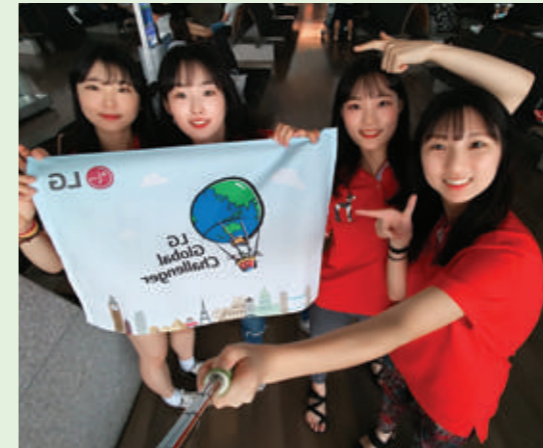


### [대전, 충남]



## LG Global Challenger 글로벌 간호리더를 향한 도전

2017년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박주보, 이연희, 조수경, 한상미 학생이 팀을 이루어 LG 글로벌 챌린저를 통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안녕하세요. 먼저 'LG 글로벌 챌린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LG 글로벌 챌린저'는 LG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해외 탐방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해외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해외 탐방 프로그램과는 달리 참가자가 직접 모든 계획을 세워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Q. 이번 'LG 글로벌 챌린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팀원 모두 학교에서 아랍어를 배웠고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아랍문화와 의료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대외활동에 대해 웹 서핑을 하던 중 'LG 글로벌 챌린저'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아랍에서의 의료 활동'을 주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A. 첫 번째는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SKSH)에서의 외래 실습이었습니다. 저희는 SKSH에서의 외래 실습을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아랍 환자들만의 특성과 그에 맞는 간호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병원' 방문 및 인터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아부다비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이 두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국내 의료산업의 UAE 진출 동향, 아랍과 한국 의료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 이곳만의 보건의료시스템, 외국 환자들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 등의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이번 프로그램으로 간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주제를 정하고 일정을 계획해서 다녀오고 나니 해외 의료 활동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고, 글로벌 간호 인재가 되는 것이 마냥 꿈만 같은 일이 아니라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고남의 기자 / 사진출처: 조수경 학생

## 2017년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 국제화 시대, 꿈꾸는 보건의료 인력을 만나다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보건의료 인력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7월 19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총 4개월간 국내 및 국외 실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해외취업 희망 청년 의료 인력 대상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서의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상경험과 국제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이해와 선호도를 제고하고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실습 대상자는 대학 및 기관에서 인턴십 참가자 추천 접수를 하고 인턴 실시기관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20명이 선발된다. 최종 실습 대상자는 중국, 미국, 카타르, 싱가포르, 몽골 총 5개국의 의료기관에서 직무별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간호학과 2학년 이진주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카타르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위 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경험과 국제의료 서비스 실무역량을 쌓고 돌아올 예정이다.

◆ 김혜민 기자

## 국민건강보험 일산 병원 취업설명회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우송타워 4층에서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취업설명회가 열렸다. 본 취업설명회는 안금희 간호팀장 및 겸임교수와 구재모(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현직 간호사가 함께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소개하는 홍보 동영상을 시작으로 병원 소개, 구조, 간호사 보수 및 복지, 채용공고 및 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현직 간호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평소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취업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사 직영병원으로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선두적으로 시행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와 산학협력을 맺어왔다.

◆ 김유빈 기자/ 사진출처: 김유빈 기자



## 아주대학교병원 간호본부 취업설명회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우송타워 4층에서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이은호 간호 행정교육팀장에 의해 취업설명회가 진행되었다. 병원소개를 시작으로 간호부 소개, 인력관리 (사직률 감소를 위한 활동), 간호본부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신입 간호사 지원 일정 및 선발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병원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취업설명회가 마무리되었다. 1994년에 개원한 아주대학교병원은 2011년 경기도 최초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 획득에 이어 2014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경기 남부 권역 응급의료센터, 경기 지역암센터에 이어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 김유빈 기자/ 사진출처: 김유빈 기자

## <자랑스런 우송간호 취업 소식>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018 졸업예정자 채용 현황

2018년 졸업예정자인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상반기 취업을 마무리하였다. 공단 일산병원 19명, 고려대학교병원 15명, 세브란스병원 12명, 천안 순천향병원 12, 인하대병원 10명, 국립 암 센터 10명, 충남대학교병원 9명, 서울아산병원 8명, 아주대병원 7명, 건양대병원 4명, 이대목동병원 3명, 삼성서울병원 3명,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2명 등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 정소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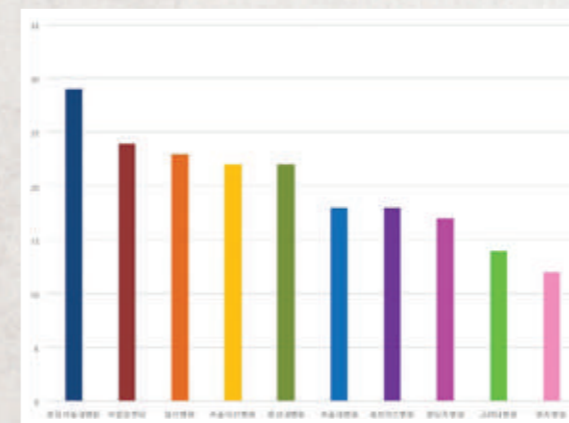
### 의료기관 종별 취업 현황

| 의료기관 종별 취업 현황 (단위: 명, %) |              |              |              |              |             |
|--------------------------|--------------|--------------|--------------|--------------|-------------|
| 총                        | 상급종합병원(56.6) |              | 종합병원(39.5)   |              | 병원(3.9)     |
|                          | Big 4        | 상급종합병원       | 국공립병원        | 대학병원         | 기타          |
| 309<br>(100.0)           | 91<br>(29.4) | 84<br>(27.3) | 59<br>(19.2) | 63<br>(20.5) | 12<br>(3.8)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총 5회 졸업생들은 309명 전원 모두 다양한 의료기관에 100% 취업에 성공하였다. 그중 56.6%의 학생이 상급 종합병원에 취업했으며 각각 Big 4 병원에 91명, 상급 종합병원에는 84명의 학생이 취업했다. 39.5%의 학생들은 국공립 병원에 59명, 대학병원에는 63명의 학생이 취업했다. 기타 병원에는 3.9%로 12명의 학생이 취업하였다.

◆ 정선희 기자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Top 10 병원 별 현황



우송대학교에서는 총 5기까지 꾸준히 간호학과 졸업생들을 배출해 왔다. 그중 다수의 졸업생들이 Top 10이라고 불리는 병원 취업에 성공하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기 8명, 2기 7명, 3기 3명, 4기 3명, 5기 8명으로 총 29명이 취직하였다. 국립암센터는 1기 2명, 2기 4명, 3기 3명, 4기 4명, 5기 11명으로 총 24명이 취직하였다. 일산병원은 1기부터 2기까지는 없었으나, 3기 8명, 4기 10명 5기 5명으로 총 23명이 취직하였다. 서울아산병원은 1기 3명, 2기 5명, 3기 4명, 4기 4명, 5기 6명으로 총 22명이 취직하였다. 충남대병원은 1기 2명, 2기 2명, 3기 3명, 4기 5명, 5기 10명으로 총 22명이 취직하였다. 서울대병원은 1기 3명, 2기 3명, 3기 3명, 4기 7명, 5기 2명으로 총 18명이 취직하였다. 세브란스병원은 1기 1명, 2기 7명, 3기 1명, 4기 5명, 5기 4명으로 총 18명이 취직하였다. 분당차병원은 1기는 없었으나 2기 6명, 3기 6명, 4기 3명, 5기 2명으로 총 17명이 취직하였다. 고려대병원은 1기부터 2기까지는 없었으나, 3기 4명, 4기 9명, 5기 0명으로 총 14명이 취직하였다. 명지병원은 1기는 없었으나, 2기 1명, 3기 4명, 4기 7명, 5기 1명으로 총 13명이 취직하였다. 1기 졸업생 중 65.5%, 2기 졸업생 중 72.9%, 3기 졸업생 중 66.1%, 4기 졸업생 중 62.6%, 5기 졸업생 중 59.8%로, 전체 졸업생 중 64.7%로 총 200명이 Top 10 병원에 취직하였다.

◆ 정선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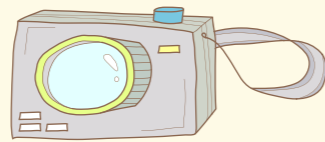
간호학과 신문 동아리

# Sol-Nursing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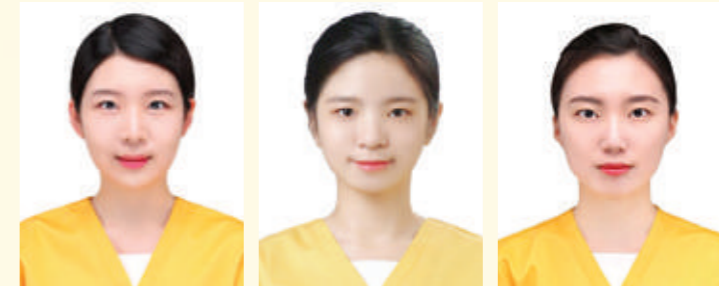


**Sol-Nursing Times**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 동아리입니다.

우송간호의 소식과 행사를 담은 잡지와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Sol-times는 글, 사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ol-Nursing Times' 동아리 회장 고남의입니다.  
새롭게 임원진을 선출한 만큼 다들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임원진 모두가 같이 협력하고 동아리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이번 잡지를 무사히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때부터 함께 해온 이 동아리에서 회장직을 맡게 되어 이번 잡지를 만들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소식을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발간하는 잡지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소식을 많은 분들께 전하고 홍보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3호 2017년 1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